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목자 부흥의 밤(4/28)                      - 성도양육과정 개강(4/29)
  - Grace Kids Day(5/2)    - 제직 세미나 (5/2)    - 그룹장 모임(5/5)
  - 예손모임(5/7)            - 족구대회(5/9)            - Mother's Day(5/10)
  - 창립 44주년 부흥성회(5/14~16, 강사: 김병삼 목사)
  -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5/17)    - 교회 대청소(5/16)

가정교회 보고서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가정교회 예배안 2026. 4. 19

### 4월 셋째 주: 신앙의 순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히브리서 11: 13~16)

#### ■ Welcome

만약 오늘 당장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가방에 꼭 챙기고 싶은 물건 3가지는 무엇인가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히브리서 11:13~16

11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 서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 는 순례자이다. 아브라함도 떠났고, 이스라엘도 광야를 지났으며, 다윗도 자신을 나그네라 고백하였다. 신약의 성도 역시 동일하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믿음의 삶은 '순례의 길'이다. 이 순례의 길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난 한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지나 마침내 하늘 성에 도착하는 이야기이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도 동일하게 말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집으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이 땅을 향해 사는가? 아니면 본향을 향해 사는가?

#### ■ 관찰 질문: 신앙의 순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면?

#### 해답 1.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다(13절).

13 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본질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기뻐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 하였으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나그네’(επιπορευομενοι)는 잠시 머무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ξενος)은 소속이 다른 존재를 의미한다.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

모세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라고 하였다(시 90:10).

결국 인간은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능적으로 영생을 갈망한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인간은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다. 『천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떠난 사람이어야 한다. 아직 완전히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이 바뀐 사람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다.

## ❦ 적용 질문 1

1)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많이 마음을 두고 있나요? 이 땅의 것(집, 직장, 관계, 성공 등)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순례 길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나요?

## 해답 2. 우리는 십자가에서 해방된 자이다(14~15절).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은 자들’이다. 본향은 자신이 속한 근원, 반드시 돌아가야 할 참된 집을 의미한다. 성도가 ‘나온 바 본향’은 이전의 삶, 옛 정체성, 하나님 없이 살던 자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제 성도는 진짜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떠났지만,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고 마침내 십자가 언덕에 이르게 된다. 그 순간, 그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저절로 풀려 떨어진다. 그는 천사들을 통해 죄 사함의 선언을 듣고,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두루마리를 받는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였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죄의 짐이 내려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죽음의 권세가 끊어진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녀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다. 마치 사형수가 사면을 받아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정말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죄의 짐이 벗겨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영생은 인간이 노력하여 이룬 선한 행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 ❦ 적용 질문 2

1) 천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의 무거운 ‘죄의 짐’이 풀려 나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해답 3.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이 있다(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본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πατρις (파트리스), 영어로 homeland, fatherland 라는 뜻이다. 어원은 ‘아버지’를 뜻하는 pater(파테르)에서 나왔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본향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며, 내가 속한 근원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자리이다.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 정체성과 소속이 회복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을 향해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영광이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본향이 있다. 이미 예비된 성이 『천로역정』에서도 나타난다.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 섰을 때에 크리스천에게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넌다. 마침내 그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하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 하늘 성은 이미 순례의 길 가운데 ‘아름다운 집’에서 멀리 바라본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세워졌다. 그때 그의 눈이 열려 본향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비전이 그를 순례의 긴 여정에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다. 그렇다고 그 이후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치열했다. 그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아블루온과 싸워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

순례의 길은 꽃길이 아니다. 구원 이후에 시작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믿음이 자라고 정결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 눈물과 기도, 넘어짐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다. 그러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 적용 질문 3

1) 순례의 길은 꽃길도 아니고 치열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본향의 소망이 어떤 힘이 되고 있나요?